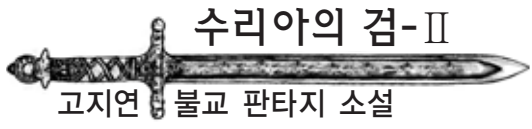


너무 이상한 일이 생겨서 일단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수리아의 검-Ⅱ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이야기의 시작 - 운명과 예언 (2)

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확실히 개운치 않은 느낌이었다. 리시는 아주 먼 옛날인 금의 시대의 일곱 스승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가르침을 전했던 그들은 후세의 인간들을 위하여 예언을 남겼다. 금의 시대에는 인간도 신들만큼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예언은 그때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것이었다. 다만 당시는 아직 문자가 없던 시절이라 구전으로 전승된 몇몇 예언들이 지금처럼 고대 문헌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그 문헌에서 예언한 것들이 어긋나는 경우는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다고 전해진다. 그런 이유로 예언서가 전해 내려오는 마을에서는 현명한 스승, 즉 구루라고 불리는 자만이 소중히 보관하여 후손에게 전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이 카필라 마을도 리시의 그 예언서 중 하나가 전해 내려오는 마을 중의 하나였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비를 맞지 않고 태어난 아이가 마을의 멸운을,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앞당긴다고 해석했던 그 내용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물론 이 지역에선 예로부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비를 내려 생명의 씨앗을 틔우게 되는 것이라는 탄생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글쎄. 난 모르겠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난 원래 예언이나 운명 같은 건 믿지를 않네. 이 예언서는 그저 구루에게서 구루로 비밀스럽게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의 상징 같은 것뿐이지.”

유독 ‘비밀’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는 유리 영감이었다. 뜨겁게 찬장은 괜히 시선을 돌리며 탄성을 부렸다. 잠시 후, 결국 그는 인사만 남긴 채 황망히 유리 영감의 오두막을 나섰다. 그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유리 영감이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젊은 시절, 촌장은 마야를 사랑했다. 자신과 결혼할 여자는 그녀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약초를 캐러갔던 마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는 정신없이 그녀를 찾아 헤맸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누군가 마을 앞에 쓰러져 있던 마야를 데리고 그의 집을 찾아왔다. 그때 이미, 마야는 무늬를 임신한 상태였다. 그는 마야가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죽을 정도로 괴로운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 어떻게 자신을 임신 시킨 남자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를 수 있던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그녀를 안쓰러워하고 도와주려 애썼지만, 그는 그 모든 게 거짓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 결국 죽고 싶어질 정도로 괴로운 나머지 유리 영감의 오두막을 찾았

다. 독약을 훔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이 독약 대신 바로 그 예언서였던 것이다. 모든 덕목들 중 화목과 조화를 가장 중히 여기는 마을의 풍속 상, 이제까지 혼외의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분명 무늬가 최초였다. 자신이 알기로는 그랬다. 그러니까 무늬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이, 즉 예언서에 나오는 ‘비를 맞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 후로 촌장은 아무래도 무늬를 좋아할 수 없었다. 마야 역시 꺼려지긴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쌍둥이를 한 번에 다 출산하지 못하고, 나머지 한 아이를 임신한 채 만삭의 몸으로 팔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마을의 공동 작업에도 얼굴을 내미는 일이 없었다. 그녀를 걱정할 마을 사람들의 만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촌장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오히려 꺼림칙하게 느껴졌다. 가끔은 마야를 아끼는 마을 사람들에게 예언서의 내용을 말해주고 싶다는 충동이 들기도 했다. 아무튼 지금으로서 그 예언은 틀렸거나, 혹은 전혀 다르게 해석해야 할 내용이었다. 그는 무늬의 죽음으로 기분이 개운해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불과 이를 후, 촌장은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몸져누웠던 마야가 팔 년 만에 쌍둥이 중 남은 한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였다.

이번에도 마야의 출산을 도운 것은 유리 영감이었다. 태어난 아기는 정말 죽은 무늬가 태어났을 때와 똑같이 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젖을 물리는 마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모습에 유리 영감의 마음도 아파왔다. 오늘은 죽은 무늬의 생일이기도 했던 것이다.

“쌍둥이는 쌍둥이인 모양이다. 생일이 같은 걸 보니 말이다.”

마야는 그러한 눈빛으로 유리 영감에게 뭐라고 대꾸를 하려 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깜짝 놀란 마야는 계속 입을 벌려보았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 그녀는 겁에 질렸다. 아기도 그런 엄마의 기분을 느낀 것인지 젖을 먹다 말고 울기 시작했다. 역시 깜짝 놀란 유리 영감이 마야에게 물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냐?”

마야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짐목 속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다.

유리 영감은 마야에게 닥친 모든 불행의 원인이 무늬의 아버지인 그 알 수 없는 그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인물일까. 자신과 절친했던 마야의 아버지 아우르는 잠부주의 서쪽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약사였다. 그는 일찍이 부인을 잃고 어린 딸 마야와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 약초를 캐러 산에 갔다가 안타깝게도 실족사하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홀로 남은 마야를 힘을 모아 길러냈다. 그런데 그런 마야가 아버지와 같은 약사가 되겠다고 누프르산으로 약초채집을 처음 나간 날, 사라졌던 것이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밤을 새가며 근



삽화·김홍인

처 모든 산을 뒤졌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애타게 찾던 마야가 마을에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다섯 달 후였다. 이미 아이를 가져 배가 불러 오기 시작하는 무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찌 된 일이나고 몰랐지만, 그녀는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마야가 기억하는 것은 산길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자신을 어떤 노인이 간호해주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까지 알려준 게 다라는 것이다. 그 외에 그녀의 기억은 약초채집을 처음 나간 날에 멈춰있었다. 사람들은 기억을 잃은 채, 아이까지 가진 그녀의 처지를 가엾게 여겼지만

정작 마야는 그렇지 않았다. 마을에 돌아와 무늬를 낳아 기르면서 한결 같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지냈다. 유리 영감도 마야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무늬를 출산한 후에도 마야의 배가 꺼지지 않은 채 임신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걱정스러웠다. 필시 쌍둥이 일 것이라 생각은 하였지만, 너무나 기이했다. 그는 그제야 다시 예언서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아이의 아버지를 모른다는 사실이 늘 목에 걸린 가시와도 같았다. 이제 이런 일까지 생각하고 나니 더욱 그랬다.

한편, 마야의 출산 때문에 유리 영감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의 집에서도 아따라는 말이 새끼를 낳았다. 수컷의 흰 망아지였다. 난다는 무늬와 새끼의 성별을 두고 내기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걸 맞춘 사람이 그 망아지를 가지는 내기였다. 할아버지도 가까이 허락해, 무늬와 난다가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었다. 하지만 내기에서 이긴 무늬는 이제 없다. 난다는 슬프기만 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망아지가 네 발을 땅에 디디고 서더니, 어미의 젖을 찾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갑자기 기운이 났다. 무늬는 자신이 이기게 되면 망아지 이름을 ‘칸타카’라고 짓겠다고 말했었다. 난다는 그 이름을 조그맣게 발음해 보았다. 젖을 먹던 망아지가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귀를 쫑긋했다. 눈물이 고여 있던 난다의 눈가에 웃음이 번졌다.

이들이 지났다. 난다는 마구간에서 칸타카를 돌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유리 영감은 마야의 몸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는 집에 돌아와 쉬는 중이었다. 마야가 말을 잃은 것은 슬픔과 충격 때문인 것 같으니 일단은 두고 보기로 한 것이다. 그때 누군가 유리 영감을 급하게 찾는 소리가 들렸다. 마야와 아이를 돌봐 달라 부탁해놓은 이웃집 아낙이었다.

“무슨 일인가?”

“아이구. 너무 이상한 일이 생겨서. 일단 가셔서 직접 보셔야 할 거 같아요.”

무척 놀란 그 얼굴에는 어렴풋이 두려움도 드러나 있었다. 마야의 집으로 향해 가는 길, 이웃이 들려준 이야기는 팔 년만의 출산이라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유리 영감의 부탁을 받고 마야의 식사를 챙겨주러 갔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글쎄, 갓난쟁이는 온 데 간 데 없고, 그 자리에 무늬가 딱히 누워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놀랐는지, 가지고 갔던 음식도 다 없어 버리고…….”

“확실히 봤다는 말인가?”

“아이구. 그럼요. 눈을 떴다 갑니다. 비뻤다 부뻤다, 했지만 그런 확실하 무늬였어요.”

“마야는?”

“아니 그제, 그런 와중에도 아주 폭 자고 있지 뭐예요? 처음엔 죽었나 싶을 정도였더니깐요!”

원래도 과장이 많고 호들갑스럽긴 했지만, 헛것을 보거나 말을 꾸며내는 여자는 아니었다. 유리 영감은 좀 더 빨리 발걸음을 옮겼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어느새 마야의 집에 당도한 유리 영감이 급히 문을 열었다. 순간 그의 발걸음은 그대로 멈춰서고 말았다. 침상에서 다리를 모으고 쪼그려 앉아있던 한 소년아 고개를 들어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기 때문이다. 그 얼굴은 분명 무늬였다.

“아니, 무늬 네가 어떻게 해서……?”

유리 영감은 미처 말을 다 맺지도 못했다. 아낙은 당황하는 그의 옆얼굴을 ‘어때요? 내 말이 맞지요!’ 하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차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학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대구 053-566-1116	울산 052-260-1037
부산 051-441-0111	경남 055-932-5877	제주 064-755-7588	전북익산 063-854-1060
지리산 063-635-5112	해운대 051-757-999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연수원 (바라, 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본 예술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2기(6개월 과정) 학인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특강
1. 기초이론	이론 및 실기·사물, 각종 사찰행사 실기	목	5~6시	○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인간문화재 보유자 경호 큰스님 직강 ○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바라무 조교 보림 스님 직강
2. 전문의식	• 전통소리(안장사) • 삼신이운 및 전통불교의식 • 무형문화재 제9호 오공양 작법소리 • 북청계(천수바라)	금	5~6시	○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이사장 및 부산영산재작법무 조교 원산 스님 직강 ○ 속성반 1. 바라, 작법무, 실전위주 2. 화청, 살풀이, 극락무, 승무, 사주신주, 구공법, 조상영가 찾는법
3. 바라작법무	• 오공양 작법무 (운심작법, 다계작법, 삼귀의작법무) • 천수바라(무) (사다리니바라)	목·금	4~5시	부산시 지정 무형 문화재 제9호 부산 영산보존회 등록되어 있는 바라, 작법무

■ 특 전 : 1. 본교생(졸업)으로서 성적우수한 자는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전수 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계 행사 출현 실무
3. 년 1회 정기행사 직접공연 (공연 발표회, 영산대제, 산신대제, 수륙대제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모집기간 : 2011년 2월 20일 ~ 3월 20일 (수시)

■ 입학식 : 2011년 3월 24일(목) 오후 3시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권영축사
부산영산보존회 바라 작법무 연수원 / 부산 동구 범일동 1454-17번지 영축사 (구, 만덕동 해동사)
연락처 : 이사장 원산 스님 011-582-8975 / 혜화 교무스님 010-2563-5550